

## ‘별난 도시’ 순천은 뭔가 달랐다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통해 세계적인 생태·정원 도시로 도약  
노관규 시장의 집념·공무원 전문성·시민 참여 ‘삼합’ 성공 비결

지난 31일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적인 생태 도시·정원 도시가 인구 28만명에 불과한 소도시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214일간 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981만 2157명. 순천 인구의 35배에 달한 인원이다. 폐막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미 목표 관람객 800만명을 넘겼다.

10년 만에 다시 치른 정원박람회가 1000만명이 가까운 관람객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도시의 판’을 바꾸는 ‘별난 시도’ 덕분이다.

정원박람회의 성공에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것을 일선에서 이끈 노관규 순천시장의 집념이 크게 작용했다.

노 시장은 2013년 ‘1회 정원박람회’를 직접 기획했다. 세계적인 경관 건축가 찰스 젠크스와 국내 조경 전문가 고정희 박사 등 여러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원박람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에 출마하는 바람에 직접 박람회를 주관하진 못했다. 총선에서도 떨어져 10여 년 공백기를 가졌다. 노 시장은 “10년 넘게 ‘야인 생활’을 하면서 세계 정원 문화를 체험하고, 가든 전문 지식을 공부했다”며 “그 결과물이 이번 정원박람회”라고 했다.

박람회를 준비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성공에 기여했다. 순천시는 2014년부터 국가정원운영과와 정원산업과 등을 운영하며, 정원 전문가 40여 명을 길러냈다. 순천시에는 정원 전문가만 100여 명이 위촉돼 있다.

시민의 참여는 성공의 또다른 원동력이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류지(貯溜池) 공원(오천그린광장)과 도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깎아 ‘도로 정원(그린아일랜드)’을 선보였다. 조성 과정에서 교통 불편 등 시민들 불만이 상당했지만, 순천시는 끈질긴 설득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

이 같은 흥행에 순천을 배우려는 자치단체 등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도심 속 정원을 배우려는 자치단체 200여 곳을 포함해 기관·단체 510곳이 순천을 찾았다. 서울과 세종이 정원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32개 지자체가 정원 도시

시를 선언했다. 지자체 정원 관련 부서는 전국에서 24곳이 신설됐고, 77건의 자체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3월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것도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데 주효했다고 조직위 측은 분석했다.

순천시는 박람회 기간을 세계적인 생태·정원 도시를 알릴 기회로 활용했다. 지난 9월 15개국이 모인 국제원에생산자협회(AIPH) 총회와 15개 ‘국가의 날’ 행사를 잇따라 치르며 국제 행사 개최지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 외에도 영화축제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이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은 도민·공연·정원·작가와 함께하는 영화제로,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진행됐다.

정원박람회는 도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입장권과 식음료 판매를 통한 직접 수익금은 폐막일 기준 333억원으로, 목표 수익금(253억원)의 130%를 초과 달성했다.

박람회장에 입점한 35개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시설은 물론 인근 원도심 음식점들도 재료가 없어 장사를 못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원박람회로 인해 1조5926억원의 생산유발, 2만514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715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0년 전 박람회에 이어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노관규 시장은 성공 비결로 “시장, 공무원, 시민의 ‘삼합(三合)’을 들었다.”

흑두루미를 위해 순천만 전봇대 282개를 뽑고 강변로를 막아 잔디밭을 펼치는 과감한 시도를 단행한 건 이들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순천 시장을 이끄는 노 시장은 정치적인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순천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왔다. ‘생태 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문화도시’로 또 다른 변혁을 꿈꾸고 있다.

박람회장 동문권역에 ‘한국형 디즈니랜드’ 조성을 추진하는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사업비 2000억원을 확보해 놓았다.

노관규 시장은 “그동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사랑해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국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박람회는 끝이 났지만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순천은 정원에 문화의 옷을 입혀 더 큰 도약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정원과 도심, 순천만을 하나로 이은 정원 위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얹어 한국판 K-디즈니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백양사의 가을, 붉디 붉어라 2일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백양사의 단풍은 어린이의 손처럼 작아 아가단풍이라 불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국장애인체전 오늘 목포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1만여명 참가

개회식 성화 점화·공연 등 다채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다지는 ‘열정의 무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한다.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 전남에서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국회의동포선수단 등 1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한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행사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재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높이 퍼져라, 전남의 소리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 사전행사가 시작된다. 오후 5시부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대표 선서, 주제공연, 성화 점화 등의 공식행사가 펼쳐진다.

공식행사의 사이사이에 각 장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도장을 도입해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된 총 3막의 주제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장애와 비장애, 인간과 기술 등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정으로 밝히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아 현대무용과 전통 문화를 담은 연출을 통해 전남만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제1막 ‘꿈으로 향하는 몸짓’에서는 각자 다른 모습과 생각이 소리의 울림 속에서 하나됨, 제2막 ‘마음은 몸짓이 되고, 몸짓은 소리가 된다’에서는 꺾이지 않는 모두의 마음을 표현한다. 제3막 ‘기대하게 빛나는 우정의 빛, 희망의 빛을 밝히다’에서는 장애와 비장애, 인간과 기술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희망을 표현할 예정이다.

이어 성화 점화가 진행된다.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지난 10월 3일 채화된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전국체전 성화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올 전남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도민 685명의 손으로 봉송,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안치됐다. 개회식 당일 도청에서 목포종합경기장으로 봉송되는 성화는 경기장 내 트랙을 달리는 주자 4명의 손을 거쳐 최종 점화주자에게 전달돼 성화 점화 퍼포먼스를 통해 대회의 본격 시작을 알린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지를 이제 전남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0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  
의사부족  
해소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지역공공  
의료사령탑  
역할 수행



Land of Life, Best Jeonnam